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시,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거리조성' 의견 수렴

진행상황 공개·간담회·사업설명회 등



광양시가 민선7기 관광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의 밑그림을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먼저 오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 기본 및 시설계획'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3월 2일에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시가 3회에 걸친 설명회를 계획한 것은 민선7기에 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겠다는 정현복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 이끌어가겠다는 취지다.

2천여 원이 소요될 이번 사업은 광양만과 이순신대교 주변의 진수공간을 광양시 관광, 문화, 여가의 '감성·문화콘텐츠 관광거점'으로 만

들며, 시민이 일상에서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을 유치해 도시의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김호대교에서 금호대교 수변 일원(약 9.4km)에 조성될 해변관광테마거리는 워터프론트 콘텐츠를 활용해 항만이야기, 빛의 이야기 존, 철의 이야기 존, 역사이야기 존 등 5개 존으로 나누어 24개의 콘텐츠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부두 인근의 '항만이야기' 존에는 이간등물원(크레인경관조명), 선사인 힐링파크, 달빛카페존/포차 등이, 김호대교와 삼화섬 구간 '빛의 이야기' 존에는 달빛 해변 및 광장, 갯벌산책로, 생명의 꽃, 경관보도교, 달빛유턴선 등이 계획됐다.

또한 삼화섬과 금호대교 구간 '철의 이야기' 존은 아이언맨플라워로드, 외우생태공원 정비, 반려견 테마파크, 해변자전거 하이웨이, 수변 전망타워 등이, 이순신대교 양커리지 광장 부근 '역사 이야기' 존은

광양 이순신 마음공원 조성이 기본 계획으로 수립됐다.

따라서 핵심 관광 랜드마크로 계획 중인 이순신대교 동상 전망대는 올 상반기 중 전국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전망대 규모와 디자인, 동상 내부 건축물 활용방안과 민자유치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추진기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금호동~삼화섬 설치한 무지개다리 이어 금호동 무지개다리입구에 수변전망타워를 지난 해 말 준공했고, 이어서 청암로 8차선으로 도시와 단절된 삼화섬~마동체육원 경관보도육교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

실제 중인 4대교량(이순신대교, 집속부두 마동IC접속교, 김호대교, 금호대교)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은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무지개다리와 경관육교 그리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의 교량과 해변의 심이 연결된 야간 경관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는 광양에 하나밖에 없는 해양 관광지로, 단계별 여건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이 관광의 불모지이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변관광테마거리를 중심으로 구공산과 (가칭)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망덕포구를 포함한 섬진강의 수상 레저시설까지 보충해 선적 관광이 벨트화되면 광양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전남도 우수축제 2년 연속 선정



순천시 대표축제인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이 2019년 전남도 대표축제 평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道) 대표 축제는 매년 개최된 시군 대표축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축제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 후 순위에 따라 대표(1개), 최우수(2개), 우수(3개), 유망(4개) 축제를

선정한다.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은 2016년 개최를 시작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 2년연속 도(道) 대표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한가운데서 음식과 예술을 즐기는 도심 대표축제로 정착하고 축제장 인근 상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도심 상가 활성화 기여 및 축제장 구성,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상승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축제는 전년 대비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깨끗한 축제 수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은 '시승격 70주년'과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축제에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 관광과 채금복 과장은 "올해 개최 될 2019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이 관광객과 시민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순천시 대표 음식 개발을 통하여 더욱 더 만족스러운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2019년 시정 혁신 통한 청렴도 1등급 달성 매진

순천시는 민선7기 첫 번째 시정 목표인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부조리나 취약분야의 혁신을 통한 2019년 '청렴도 1등급 달성'과 '부패·감찰행위 ZERO'에 목표를 둔 청렴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한다.

또 2019년 청렴혁신 주요시책으로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전 부서 반부패·청렴혁신과제 추진, 청탁금지제도 운영, 부패·감찰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청렴교육·홍보, 민간협력추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7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정이 직접 직원들에게 청렴한 조직운영, 부정청탁 배제 등 청렴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간부공무원부터 청렴서약을 통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인사, 계약·공사, 인·허가, 재·세정,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등 청렴도 취약 5대 분야에 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혁신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탁자 신고접수 등

록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부패·감찰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청렴신문고' 개설·운영은 물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무기명 신고 접수, 신분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천은 예로부터 청렴의 상징인 팔마의 역사가 있는 자부심 있는 고장으로 지역사회의 청렴증진 활동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합동행사제도'를 운영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청렴실천 업무협약' 등을 맺을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차밭 빛 축제' 겨울철 전국 대표축제로 급부상

역대 최대 관광객 20만여 명 방문...지역경제 효과노릇 '톡톡'



지난해 12월 14일 개막해 겨울밤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았던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가 지난 1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1일 동안 진행된 이번 보성차밭 빛 축제에는 2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입장권 판매로만 2억여 원의 수익을 거둬 소비심리가 얼어

붙은 겨울,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는 효과 축제로 거듭났다.

이번 빛 축제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모티브를 얻어 매일 밤 흰 눈이 내리는 보성차밭에 민송이 LED 차 꽃과 눈사람, 디지털 나무 등을 설치하여 차밭과 공원일대를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들였다. 또한,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 동료들이 사연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밤하늘을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수조명쇼와 북채 건물 외벽에 영상으로 쏘아올린 새해 메시지가 어우러져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새롭게 선보인 에어돌 하우스는 워터이자 소망카드 및 빛 체험장으로 사용되며 연 몸을 녹일 수 있는 푸근한 공간으로 방문객의 호응을 받았으며, 토요일과 크리스마스에 진행된 버스킹 공연 또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아늑한 공간으로 구성된 문화장터는 주전부리 코너, 농특산품 판매장, 보성군세마을회가 운영하는 식당 등으로 꾸러져 겨울철 별미를 맛보는 공간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다.

보성=안구일 기자

구례군, 국제 철인3종경기 참가 접수

구례군은 최근 WTC와 국제 철인3종경기 대회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9월 22일 '2019 국제철인3종경기(아이언맨구례코리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인3종경기는 국한인 내내심과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로 한 선

수가 3개 종목 226km(수영3.8 - 사이클180 - 마라톤 42.2)를 17시간 이내에 휴식없이 완주해야하는 스포츠다.

금년 대회에는 참가신청수 500명을 확대하여 완벽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례군은 2019 국제철인3종경기 대회 참가 접수를 1월10일부터 시작하여 선착순으로 2,000명을 모집하며 국내·외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등 대회를 사전에 준비하여 완성도 높은 대회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등록방법은 대회 홈페이지(ironman.com/korea)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총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